

보사부 차관에 李憲琦의원 취임



李憲琦 보사부차관

정부는 7월13일자로 보사부 차관에 李憲琦 민정당위원을 임명했다.

신임 李차관은 38年 忠南 瑞山 태생으로 仁川高와 高大 및 동 大學院을 졸업한후 철도청에 근무하면서 철도노조에 투신하여 노동운동에 참여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인도 노동大學, 이스라엘노동 및 협동연구원, 美 위스콘신大學 등에서 수학 하기도 했다.

또한 李차관은 민정당 창단 발기인으로 정계에 투신,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여 보사위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 민정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복지사회연구실장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李次官은 임명된후 7월14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사행정을 위해 전념키로 했다.

매사에 학구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있는 李차관은 취임사에서 보사행정에 경륜과 전문지식이 없으나 유

7월13일 취임식 거행

능한 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여 복지사회 건설속진과 신뢰받는 보사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생총관리대책회의 체한 일정 및 대표명단

이번 회의의 전체일정 및 방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日程 ;

일본개최=83.7.4~7.17

한국개최=83.7.18~7.22

자유중국개최=83.7.23~7.29.

일본대표

○國井 涉(予防医学事業中央会本部 事務局長)

○松崎邦弘(石川県予防医学協會 事務局長)

○米村寛文(東京都予防医学協會 医務課 課長補佐)

○菅原大作(同上 業務部広報室係長)

○加藤藤(同上 統計資料室課長補佐)

○鈴木信吾(神奈川県予防医学協會 業務部 検診計劃課長)

중화민국대표

○林文宗(台湾省政府衛生處 股長)

○簡金枝(" 技士)

○王車財(彰化縣衛生局 技士)

○林勝義(高雄市三民區衛生所 所長)

徐丙高 회장,理事로 선임

WHO 열대의학 특별기획 합동조정 이사회



서병설 회장

徐丙高 본회 회장이 세계 보건기구인 WHO 합동 조정 이사에 선출됐다.

지난 6월29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제6차 열대의학 특별기획 합동조정 이사회는 한국 대표로 참가한徐 회장을 동 이사로 선출하는 한편 한국을 이사국으로 결정함으로써 오는 85년말까지 우리나라는 이 회의의 이사국이 되는 것이며徐 회장은 총 30명의 이사에 포함된 12명의 지역구 대표중 한사람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 회의는 세계 보건기구가 인구 조절문제와 함께 특별계획을 세운 두가지 큰 사업중의 하나로 7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열대병중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상피병, 나병, 아프리카수면병등 총 6대 질환을 선별

하여 그 분야에 관한 약제개발, 매개체 관리 역학연구등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연구소에 연구기자재및 자원을 공급하는 기구이다.

이 회의는 매년 1회씩 열리며 내년 7회 대회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다.

1983년 직원연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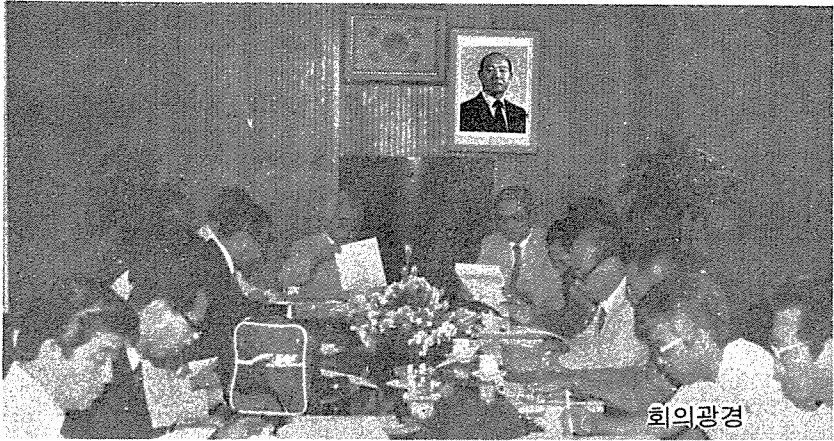
7월21일부터 3일간

직원연수교육이 지난 7월21일부터 7월23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상주리 상주국민학교에서 실시되었다.

교육대상은 지난1월 상반기 연수교육대상에서 제외된 기능직과 서기급에서 40명이 참석을 했다.

이번 교육내용을 보면 기생충관리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분석과 대내외 홍보활동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신규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토의하였다.

특히, 국민보건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전염성 만성질환에 대한 직원들의 제반업무 수행능력과 자질 향상 및 기술습득을 함양하는데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國井長次郎씨에 감사패 증정

寄協, 國井 涉씨에게도

기생충관리대책회의
세미나

(한국, 7월18일부터 23일까지)

본 협회는 지난 7월19일 본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보건회관 이사장 國井長次郎씨와 재단법인 일본기생충예방회 사무국장 國井 涉씨에 대한 감사패와 부상 증정이 있었다.

이들은 한·일 기생충관리를 위한 국제인수 및 교류를 1968년 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124명의 국제교류를 통한 연수를 실시하여 한·일간의 기생충관리와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다.

특히,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 대하여는 기술교류와 기자제지원등으로 동사업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한·일·중 3개국 기생충대책회의 세미나가 지난 7월4일부터 7월29일까지 일본·한국·자유중국(대만)에서 연이어 개최되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18일 김포공항에 도착 寄協세미나에 참석후 서울支部 현황을 살펴보고 시내와 고궁을 관광했다.

이어 20일엔 대구에 도착 경북支部를 시찰하고 경주에 들러 한국의 고적등을 관광했다. 이어서 용인민속촌을 둘러본 후 6일간의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자유중국(대만)으로 향했다.